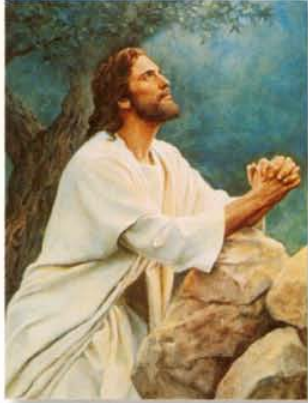


리아호나



리아호나



2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확신에 찬 생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10 회복의 요람
- 18 회복의 풍성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를 구축함
- 32 "그가 혹은 사도로"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
- 42 말일성도의 소리: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값
저는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브랜든 제이 밀러
구름 사이로 애나 리마 블랙스톤
새로운 꿈 마라 파트리시아 로하스 브이
강인한 카우보이 앨런 엘 노블
- 48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활용하기



표지

1820년대 목조 주택에 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 부모님의 침실.
10쪽 "회복의 요람" 참조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청소년란

- 8 100가지 질문 래니 리스
- 26 아나 루스레시아 모랄레스: 시인의 재능 돈 엘설리
- 29 경전 공부 제언
- 30 말씀에 말씀: 인생에서의 갈등
- 40 성품의 형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영감의 말씀

친구들란

- 2 "그 예언자가 누구니?" 제인 맥브라이드 코아트
- 5 예언자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예언자를 따를 수 있어요 다이앤 에스 니콜스
- 8 친구 사귀기: 미야코 타시로, 일본 오사카 멜빈 레빗
- 11 신약 성서 이야기: 귀신들린 사람, 예수님의 옷을 만진 한 여인
- 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구스타보 아돌포 로아이자 베르가라
기도가 주는 도움 프린시스코 하비에르 로아이자 베르가라



친구들 표지

사진 삽화: 스티브 번더슨



3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잰슨

고문: 에프 앤지우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무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옴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인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리 에이 코치, 테니즈 카

비, 헬리 프렛, 로널드 에프 스프리크, 클라우디아 이 이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26호, 제38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장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과(☎ 02-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암하리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카리비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September 2001 No.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리아호나 모음집

저는 수 년 동안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모아 왔습니다. 매년 마지막 호를 받을 때마다 저는 무척 기쁩니다. 마지막 호를 받게 되면 일 년치를 한 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마지막 호를 받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이 모음집들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보원이 됩니다.

교재와 책과 기타 교회 출판물들이 있는 저의 작은 서재에서 리아호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는 1970년의 대회 보고부부터 금년 최근 호에 이르기까지 리아호나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복음에 대해 보다 큰 이해력을 주었고,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왔으며, 공과, 말씀 및 기타 교회 임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동기를 주는 건설적인 독서 자료입니다.

다니엘 알라크엔

에과도르 과야킬 스테이크

사마네스 와드

축복과 인도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우리 가족이 매달 받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을 발견합니다. 이 잡지는 영감을 주는 출판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의 기사들은 경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잡지를 통하여 얻은 영적인 힘과 지식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스미스 드 카르도나

파나마 산 미겔리토 스테이크

산 미겔리토 제 2와드

예언자가 주는 인생의 지침

이 말일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999년 5월호 리아호나(영어판)에 실린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의 대관장단 메시지는 참으로 고무적인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책임"이라는 글은 매우 풍성하고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일을 하러 가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간 일이 있었는데, 고객 중의 한 분이 그것을 읽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잡지를 읽은 후, 그 분은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은 이 메시지가 "영감받은 글이며 현대의 생활에 잘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타 프레드리

나이저리아 조스 지방부

바우치 지부

리아호나를 사랑하는 여섯 살짜리 딸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는 저의 인생에서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의 여섯 살 난 딸아이는 이 책을 사랑합니다. 잡지가 오면 그 애는 곧장 저에게 어린이란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 달라고 합니다.

베라 루시아 안토니아시 구에리노

브라질 캄피나스 카스텔로 스테이크

호틀엔디아 와드

확신에 찬 생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감추어지지 않는 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 되었습니다.(니파이삼서 12:14 참조) 좋은 삶은, 우리 각자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수혜자이며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책임은 개인적인데 이는 간증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것을 “온 땅 위에 세울 유일한 참된 살아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로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곧 피하거나 숨을 수 없고 각자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영에 따라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한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모두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간증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해야 합니다.

때때로 매우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실망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비단 개종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세상의 유희와 혼란 가운데서 길을 걸을 때 쇠막대를 잡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치려야 하는 값은 개인

적인 용기입니다. 개인적인 용기는 양심을 고수하기 위해 치려야 하는 대가입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의 용기

역사상, 속죄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구세주와 인류의 구속주로서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통렬한 장면은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1899~1973)과 함께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고통, 즉 예수님이 홀로 영적인 고난을 겪고 계셨을 때,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올 만큼 극심했던 그 고통을 아주 적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2:33;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우리는 신뢰 받는 직분에 부름 받았던 한 사람의 배반을 회상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야만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속죄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구세주와 인류의 구속주로서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통렬한 장면은 없습니다.



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46) 라고 외치던 외로운 모습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세주는 우리를 대신 하여 속죄를 이루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행하셨습니다.

내적인 용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성입니다. 16세기에 종교적 박해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여기 저기에서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자들이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갈]”(요한 계시록 14:6) 때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는 개인적인 용기를 갖고 홀로 일어나 95개조를 발표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과 추종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견디어야 했던 일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계몽된 시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외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역시 용기를 가진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나온 열 네 살 짜리 소년은 곧 사람들에게 의해 핍박을 당했으며, 온 생애 동안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몇 안 되는 충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용감하게 길을 걸었던 모습보다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주님의 추종자들은 대중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종자의 용기

수 년 전에 런던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빗 속을 뚫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나간 저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야기 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제가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제가 속한 운동 클럽에서 클럽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어요. 지난 달에는 저의 상사가 이 교회의 회원이란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제가 물론이기 때문에 저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형제님께 그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데, 왜 형제님은 교회를 떠나 다시 아버지의 집과 운동 클럽과 형제님께 너무나 소중한 직장으로 돌아가서 형제님이 사랑하는 그 여자분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매우 가슴이 미어지듯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명을 요구한다 해도,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젖은 모자를 집어 들고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저는 양심의 힘과 신앙의 외로움과 개인적인 간증의 힘과 권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용기와 결심

저는 교회 회원들, 특히 교회의 청년과 청년들에게 말씀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개인적인 내면의 용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시험 기간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마태복음 22:37, 39) 한다는 것을 그분과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덕성을 비웃을 때, 덕스럽게 행동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비웃을 때, 유해한

물질을 삼가는 데에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편의 혹은 편리에 따라 복음의 원리를 저버릴 때 고결한 남자와 여자가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하시키며 그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평화스러운 간증을 전하는 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양심에 따라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간증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

리는 비참해 질 것이니 몹시 외로워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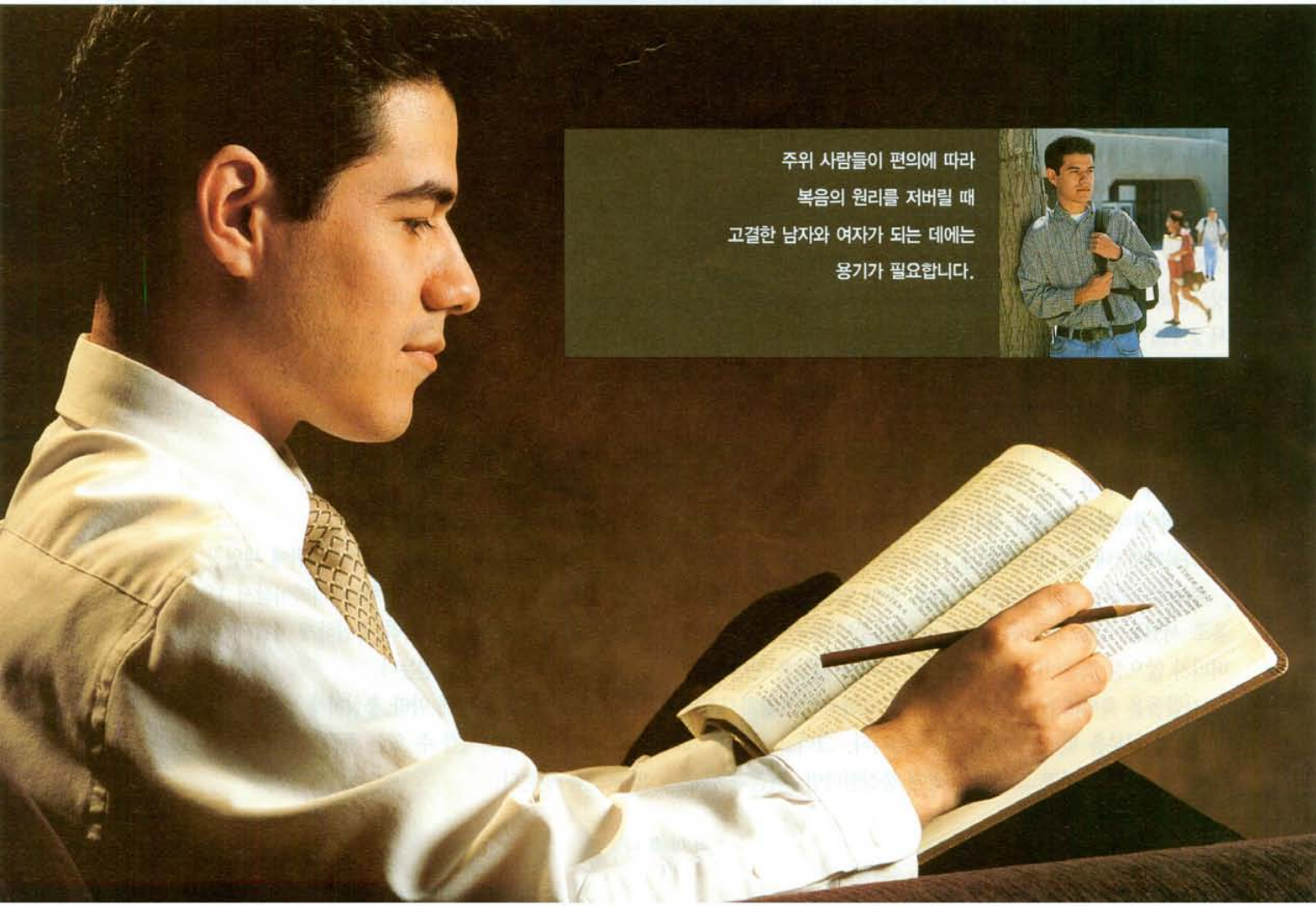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실망이 있고, 마음의 고통과 상심이 있는 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화평과 위안과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성신은 변치 않는 [우



주위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복음의 원리를 저버릴 때
고결한 남자와 여자가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리의 동반자가”(교리와 성약 121:46) 되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가르치며 인도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며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물론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보혜사[는]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성신으로 기도할진대 이 온전하신 사랑은 마지막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때까지 깃들어 있으리라.”(모로나이서 8:26)고 한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외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즉 비슷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고취시키고 용기를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서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

“형제들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 ... 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1~13)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 겸손하고 용기 있게 홀로 서있는 것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자 할 때 우리를 교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그것의 진실성을 간증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나와 영원한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겸손하고 용기있게 행하고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마음의 평강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 평강”(빌립보서 4:7)을 아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지상 생활과 시련을 견뎌야 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리와 신앙과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

복음 14:27) □



우리는 외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용기를 강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교회의 각 회원은 개인적으로 산 위에 세워진 감추어지지 않는 성읍이 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니파이삼서 12:14)
2. 양심과 복음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화평과 힘을 얻는다.
3.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교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동료 회원들과의 유대와 성신의 동반을 받는다.



100 가지 질문

그 모든 해답을
한 곳에서
찾기 전까지
나는 그 목록이
두려웠다.

초 등회 시절부터 나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책을 매일 밤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경전을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면을 다소 소홀히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회원 친구인 제니퍼 코튼은 내게 굵은 글씨체로 “래니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제목을 붙인 종이 몇 장을 건네 주었다. 나는 그 종이를 가방에 쑤셔 넣는 순간같이 교실로 들어갔다.

주말 경에 가방에서 그 질문지가 나왔다. 그 곳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100가지 질문이 있었다.—100가지 질문!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경전을 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은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임이라.”(니파이삼서 27:29) 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

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며 여러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두렵게 보이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구절들을 찾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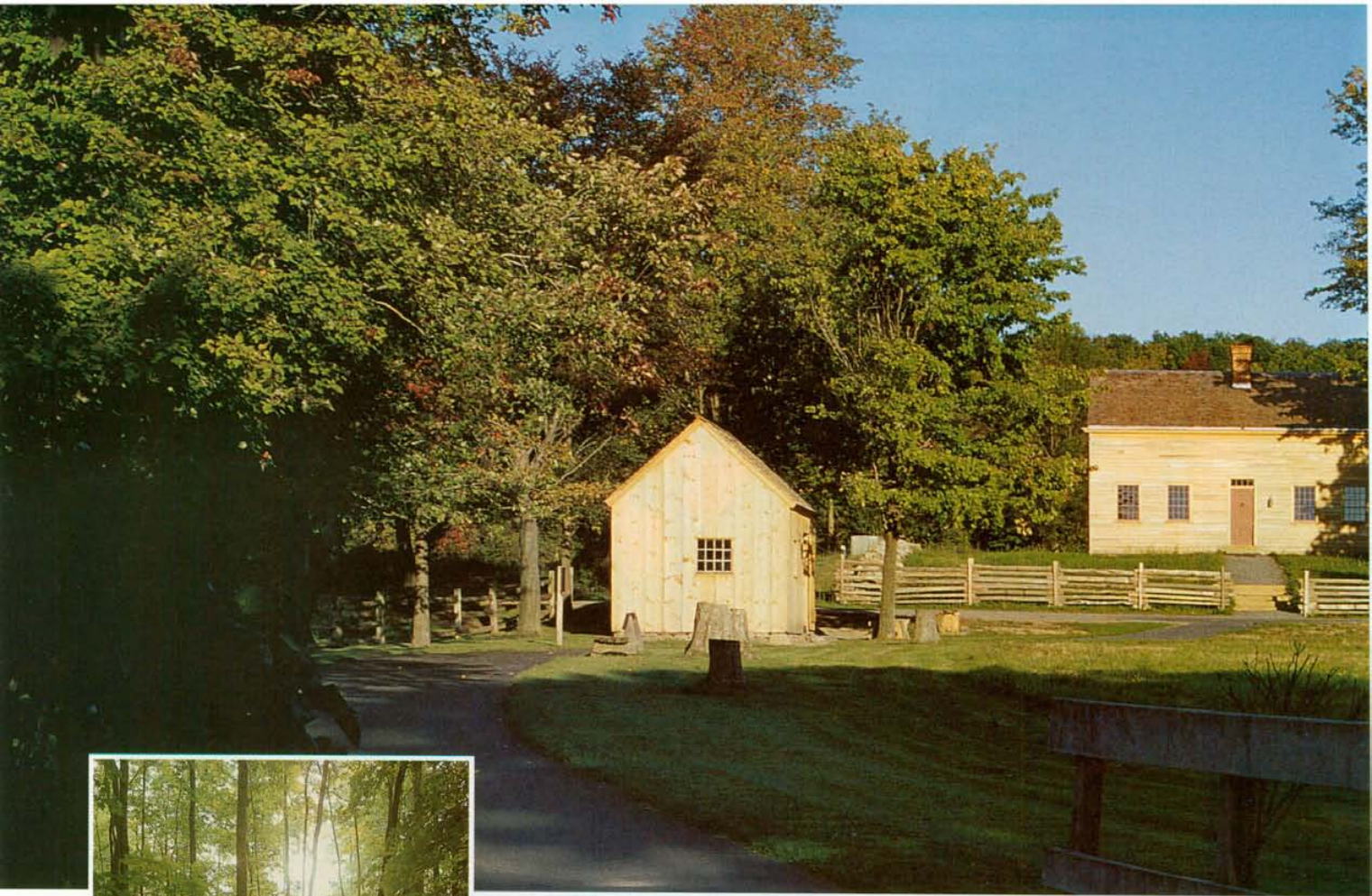
다음날, 제니퍼에게 물문경 한 권과 함께 해답을 건네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제니퍼는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니파이일서를 다 읽었다고 했다. 그때 내가 느낀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모사이아서 18장 9절은 참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기꺼이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니퍼는 내게 주님의 증인이 될 기회를 주었으며, 후에는 그녀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볼 기회를 주었다.

지금 나는 물문경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나의 문제나 필요 사항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경전에 의지할 수 있다.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

래니 리克斯는 브리검영 대학교 15 스테이크 35와드 회원이다.





위: 새로 복원된 통 제조 가게와 목조 주택, 그리고 헛간은 스미스 가족이 이곳에 살았던 당시와 똑같은 모습이다.

위 중간: 1820년에 이 "아름다운 숲은 나무가 우거지고, 길가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서 어린 요셉이 바랐던 조용한 장소로 적합했다. 그리고 아름답고 맑게 갠 이른 봄날, 이곳에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인적이고, 솔직하며, 소리 내어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¹

회복의 요람

나무 숲과 통나무 집이 있는 요셉 스미스 일세의 가족 농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자라난 신성한 땅이다.



1 820년 이른 봄, 이곳 뉴욕 주 팔마이라 바로 남쪽에 있는 요셉 스미스 일세의 농장 40 헥타아르는 신성한 공간, 곧 거룩한 땅이 되었다.

이곳 나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세 소년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나타나셨으며 이곳에서 하늘의 임재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은 스미스 가족은 그들의 아들, 그들의 동생인 요셉의 말을 믿었다. 이곳에서 모로나이 전사는 젊은 예언자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가 적혀 있는 금판에 대해 말해 주었다.(요셉 스미스서 2:34)

1827년에 21세가 된 요셉이 금판을 받은 후, 거기에 새겨진 말씀을 번역하여 물문경으로 출판할 때까지 그 신성한 기록

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 두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목조 주택과 통 제조 가게였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여명기에, 스미스 가족 농장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고 보호되고 자라난 요람이 되었다. 오늘날, 그 통나무집과 목조 주택과 통 제조 가게(나무 통을 만들고 수리하는 곳)와 헛간은 원래 모습대로 복구되어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조금만 걸어가면 거룩한 숲이 나오고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는 주님의 새로운 집—뉴욕 팔마이라 성전이 있다.

다음은 요셉 스미스 일세의 농장 사진들과, 회복 초기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위: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관하여, 예언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요셉이 "매우 진지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잠자리에 들었다"고 기록했다. 요셉은 후에 그날 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간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광채가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누가 내 침대 밑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 그 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임을 밝히었습니다."³



위: 이 통나무 집의 부엌은 가족들이 친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을 것이다. 스미스 가족이 목조 주택의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그들은 1829년에 통나무 집으로 다시 이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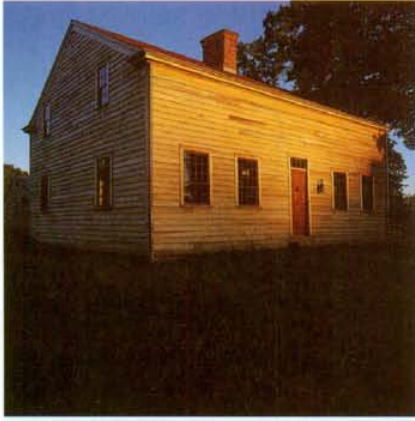


위: "우리에게는 세간이 깔끔하게 갖추어진 아늑한 통나무 집이 있었습니다."⁴ 루시 맥 스미스는 1층에 방 두개와 2층에 침실 두개가 있는 이 통나무 집에 대해서 이같이 기록했다.

오른쪽: 스미스 가족이 이 통나무 집으로 이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23세의 장남 알빈은 목조 주택을 설계하여 짓기 시작했다. "새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쾌적하고 좋은 방을 만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그러나 알빈은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 살지 못했다."⁵ 1823년 11월 중순, 그는 병에 걸려 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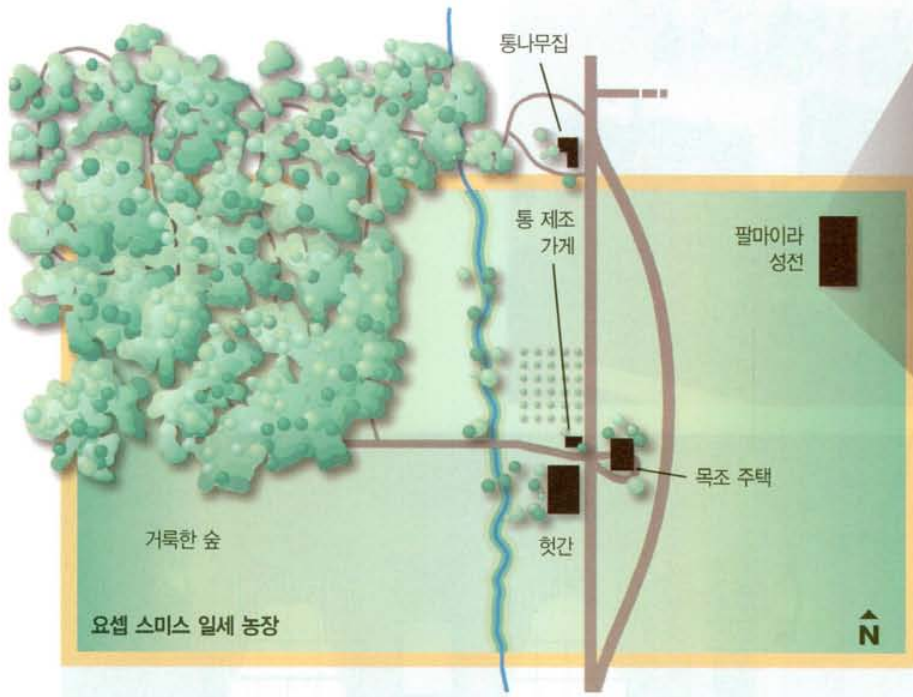
이 목조 주택(위)과 이 집의 부엌(위 오른쪽)에서, 그들은 규칙적으로 가족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다. 아들 윌리엄은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아버지는 안경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 분이 손을 더듬어 안경을 찾으시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면, 어머니가 ‘기도할 준비를 하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는 노래를 불렀어요.”⁶

왼쪽: “여기에서, 어느 날 저녁 요셉의 누이 캐더린과 소프로나가 부엌 옆에 있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이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요셉은 재빨리 움직여 금판을 천으로 싸서 침대 속의 누이들 사이에 감추고 “잠자는 척 해”라고 말했다. 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남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으며, 그들은 잠자고 있는 누이들을 쳐다보고는 침대 밑을 살펴 본 뒤 집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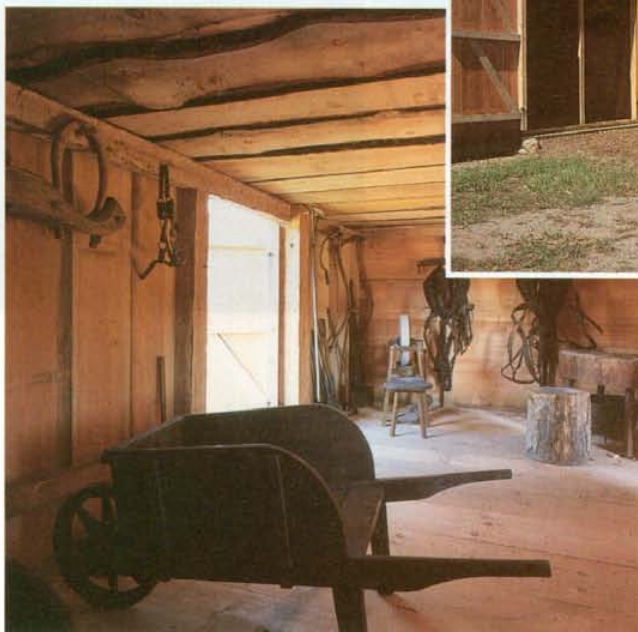
위: 거룩한 숲을 향해 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이 목조 주택의 거실은 스미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여기서 종종 요셉은 그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모로나이의 방문 이후로 “요셉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는 요셉이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라고 기록했다.⁸ 오른쪽 중간: 이 목조 주택의 1층에 있는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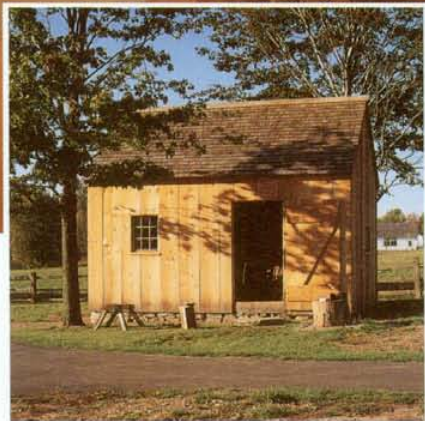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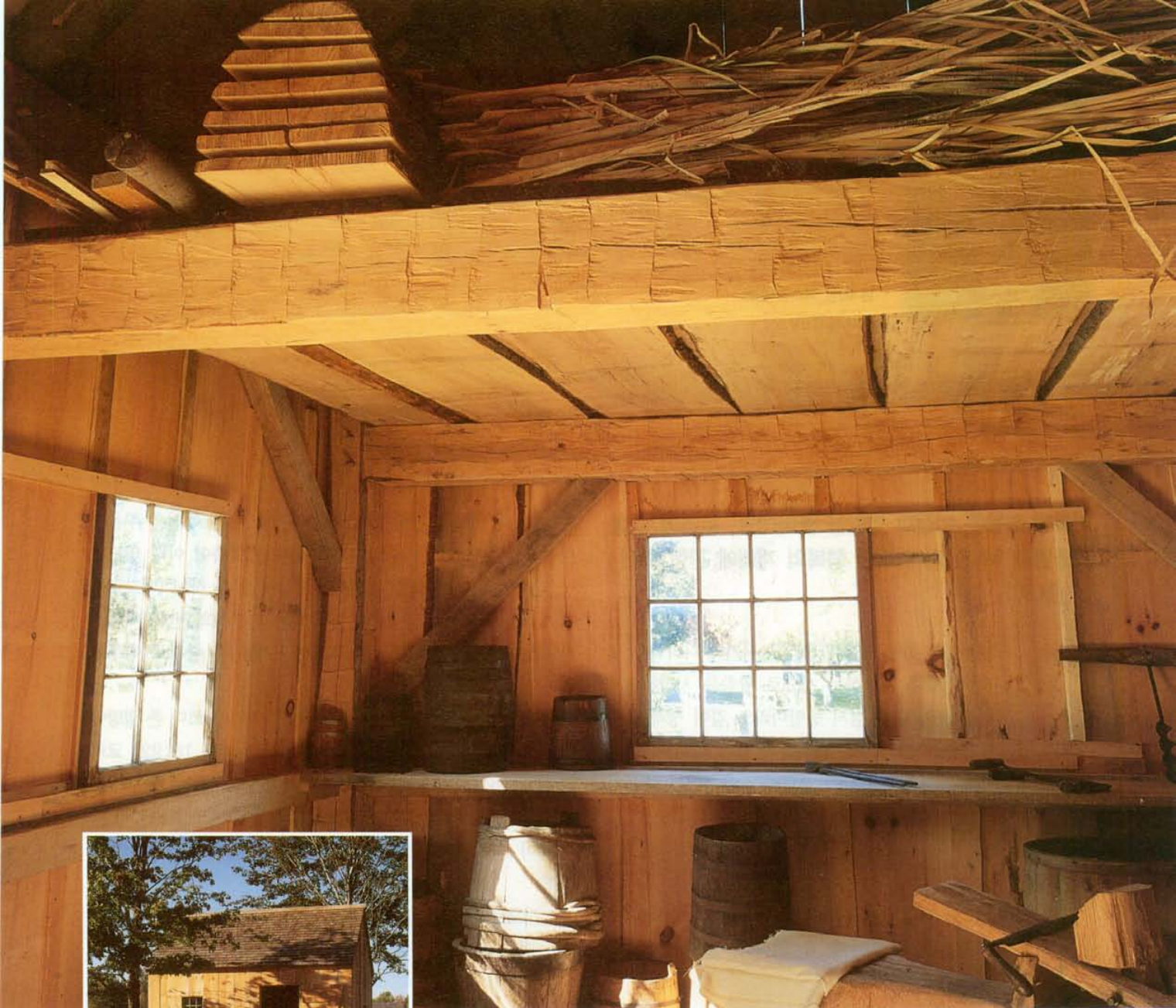


뉴욕 팔마이라 성전은 교회가 뉴욕 주 페이엣 근처에서 조직된 지 꼭 170년이 되고, 어린 요셉 스미스가 지금 이 성전이 서 있는 근처의 나무 숲에서 무릎을 꿇은 지 180년이 되는 2000년 4월 6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다. 성전을 헌납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당신의 거룩한 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집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의미하나이다. 이 집의 현관 위에는 '주님의 집,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이것은 당신의 전이옵니다. 일찍이 180년 전 당신께서 이 근처에 있는 거룩한 숲에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 곳에 임재하신다면 지희는 매우 감사할 것이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40 헥타아르의 스미스 가족 농장에는 거룩한 숲, 통나무집, 목조 주택, 헛간, 통 제조 가게 등이 있다. 최근에 헌납된 뉴욕 팔마이라 성전은 원래의 스미스 가족 농장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팔마이라 마을은 스미스 농장 북쪽에 있으며, 구모라 언덕은 농장 대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위: 헛간과 통 제조 가게. 왼쪽: 요셉 스미스 일세와 그의 아들들은 산림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이 통나무 집에 사는 동안 12 헥타아르의 숲을 개간할 수 있었으며 목조 주택에 사는 동안 12 헥타아르를 더 개간할 수 있었다. 또한 봄이면 그들의 소유인 1500 그루의 단풍 나무에서 수액을 모아 당밀과 설탕을 만들었다. 매일 농작물과 동물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헛간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요셉은 이 목조 주택의 벽난로에서 나무 상자와 금판을 꺼냈다. 그는 금판을 통 제조 기계(위 중간)의 다락 속에 숨기고 마루 바닥의 나무 판자 아래에 빈 궤를 물었다. 그날 밤 폭도가 마루를 뜯고 빈 궤를 때려 부수었으나 그들 머리 바로 위에 있는 다락은(위) 뒤틀리지 않았다. □

주

1.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53~54.
2. *History of Joseph Smith*, edited by Preston Nibley (1958), 74.
3. 요셉 스미스서 2:30~33.
4. *History of Joseph Smith*, 65.
5.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32.
6. Quoted in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35.
7. Mary Dean Hancock, "The Three Sisters of Joseph Smith," transcript, pages iii~7, RLDS Archives. 메리 딘 헨콕은 캐더린 스미스 살스버리의 손녀이다.
8. *History of Joseph Smith*, 82.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의 풍성함

회복된 복음은 의심과 절망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잠시 동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부딪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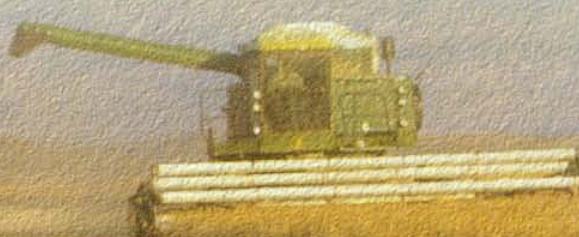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 이후 그간 수 세기는 말일의 많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 흔들려 온 듯 합니다. 말일의 조롱하

는 자들의 태도에 관한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예언은 꾸준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베드로후서 3:4) 그러므로 지구상에 계속되는 인간사의 반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계획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비추어 집니다.

이에 따른 무관심은 죄악에 더해지고, 죄악은 쓰디 쓴 절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모로나이서 10:22, 교리와 성약 45:27,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1:30 참조) 더욱이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2:36~40, 24:12 참조)

그러므로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만족을 구하는 세상에서 구원의 교리와 영원한 축복의
풍성한 수확을 줍니다.**



이 인생이란 말인가? 그들이 정복하고 성취한 것들은 결국 공허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예를 들면, 한때 헐리우드의 제왕이었던 엠지엠(MGM) 영화사의 루이스 비 메이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헛된 거야, 모두 헛된 거야”¹

덧없는 쾌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적이고 헛된 만족을 갈망하지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모사야서 27:31, 몰몬서 2:13 참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형태의 향락 문화에 열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종교를 인기 있고 대중적인 스포츠나 정치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 소용돌이를 동반하며 우리는 “세상의 왕자들이 나왔다가 잠깐 동안 영화를 누리고 사라지는 것들”² 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마태복음 24:38, 36~39절 참조)는 것과 같은 일상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요한계시록 3:17) 그들은 그들이 성공한 원인을 혼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명기 8:17)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던]”(사사기 17:6, 21:25)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 세상의 모습을”(교리와 성약 1:16) 구하고 있으며, 만인의 윤리적 상대주의라 불릴 수 있는 이 늪에 빠져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회의론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인생 여정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영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영감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개인주의를 초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명기 8:2)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기주의와 회의론은 구세주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모사야서 3:9)으로 여기거나 “값없이”(니파이일서 19:9)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힐라맨서 16:18, 17~20 참조)고 말합니다. 예언되었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예언자들이 그저 “바르게 맞힌”(힐라맨서 16:16)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 보는 것을 고집합니다.(고린도후서 4:14 참조) 보려고 하는 그들의 열망으로 인해, 그들은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지고]”(야곱서 4:14)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싹이 나기 시작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지 못하는 탓에 걸리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45:37, 요셉 스미스서 1:38~39 참조)

그러한 정황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더가 겪었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예언에 대해 “이를 보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는]”(이더서 12:5) 반응

을 나타내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로부터 ... 떨어져 나가”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충만한 복음의 빛을 알지는 못하지만 칭찬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하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처럼, 아직 모를 뿐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요한의 추종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사도행전 19:2, 1~6 참조)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 받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진리로부터 떨어져 ... 나가”(교리와 성약 123:12)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물론 우리 시대에 적합한 훌륭한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진리의 영을 동반할 때, 회복은 지식과 영감뿐 아니라 확신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먼저 고통, 죽음, 두려움, 공포, 기근, 역병 등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힐라맨서 12:3 참조)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만이 “말을 들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며”(앨마서 32:6) 이들에게만 “말씀이 ... 그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앨마서 31:5) 그러나 이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교사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사도행전

8:30~31, 강조 첨부)

물혀 있음

사람들의 부류를 계속 지켜보면,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은 미온적인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79 참조) 이들은 종종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위를 잃거나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요한복음 12:42~43 참조) 어떤 회원들은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던 엠올레크와 비슷합니다. 그는 정말로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앨마서 10:6) 이러한 회원들은, 엠올레크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권능을 느낀 경험이 있으나 “지금 그렇게 느끼지”(앨마서 5:26)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엠올레크를 계몽하고 가르치셔서 나중에 그를 특별히 강력한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쓰신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도 매우 많은 교회 회원들이 구별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는 일을 구합니다.(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6:38) 이 회원들은 개인적인 시련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교리와 성약 128:22)

우리는 또한 “보라, 원수들은 뭉쳤도다”(교리와 성약 38:12)라고 권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말일성도들은 분명 포위당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6:29 참조)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사회를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 한 덩어리”(니파이사서 1:17)가 되도록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의 축복의 수혜자로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아버지와 아들의 특성, 구원의 계획의 사업과 영광에 관한 “빛과 지식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림: 그레그 케이 울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련의 일부, Artists and Mill Pine Press, Inc. 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그림: 케네스 러일리, 금편을 받는 요셉 스미스; 사진: 폴 앤, 스티브 버디스, 리 쿠레타리, 기르메리 스톱

영적인 기억으로서의 경전

거룩한 경전의 부재와 경시를 보여주는 앞서 말한 일부 이야기들에 실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거룩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곧 창조주를 부인한 사람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 (욘나아서 1:17)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 2:10, 또한 모사 이야기 26:1~4 참조)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예언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대로 자라납니다.

거룩한 경전은 강력하게 간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알려 줍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숙고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바로 그 뒤에 있는 특별히 자주 인용되는 구절로 인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나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어 허락하시어 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모로나아서 10:3)

거룩한 경전은, 우리가 탐구하고 믿을 때, 신성한 기록에 적혀 있는 일들을 일어났던 그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거룩한 기록들은 하나님 왕국의 여러 백성들에 대한 기억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어

떻게 신성한 기록이, 실제로, “이 백성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였[는지]”(엘마서 37:8) 말해주었습니다.

회복된 증대한 지식

회복은 부활의 실재를 포함한 위대한 영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극히 중요한 계시의 과정도 회복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 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 내듯이 쓸어 내게 하여”(모세서 7:62)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후에 그 뜻을 알려 주셔야 할 것을 아셨으므로,

“천사를 보내시며 저들에게 일러 ...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때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시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마련된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으니”(엘마서 12:28~30)

말하자면,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의 계획의 본질에 관해 더 많은 진리를 알려 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큐 캐논(1827~1901)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에는 온전한 사랑 즉 자비와 공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과 관련된 기타 모든 특성이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계시된 구원의 계획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³ 그러나, 캐논 장로는 다음과 같이 통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난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민 왕이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9)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서는, 연이은 두 구절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나니”(니파이이사서 27:20~21)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분께 부과하려는 한계에 제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듣기 좋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

회복의 풍성함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심과 절망을 쫓아내고 고통을 완화시키며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 참조)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길은 보다 높고 보다 효과적입니다.(이사야서 55:9 참조)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 인간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적인 해결책들이 진지하게 제안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대개 차원이 낮은 방법들이

며, 진지하게 제안되고는 있지만, 미끄럽고 경사진 언덕에서 구부러진 막대와 울퉁불퉁한 원반을 가지고 원반 치기 놀이를 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회복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 [는]”(누가복음 6:38) 추수 바구니와 같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은 복음 교리의 결핍으로 오는 기아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이 충만함이 없어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은 사랑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역경과 더불어 고난을 겪습니다. 회복의 주요한 각 교리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들을 함께 넣고 “흔들”면 이 필수 영양소들은 더욱 강한 신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확은 풍성하여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니파이이사서 13:40), 즉 균형 잡힌 필수 영양소들을 되 가져옵니다.

고통에 대한 질문

복음의 진귀한 부분들이 박탈당한 결과의 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놔두시는가? 왜 그분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악이 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수십 년 전 영국에서 매우 저명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언제나 근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다음 세 가지 질문, 곧 영원의 문제, 인성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중 아무 것도 해결한

회복의 수확은 풍성하여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니파이이사서 13:40) 즉 균형 잡힌 필수 영양소를 다시 가져옵니다.



것이 없습니다. ... 이 문제들을 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⁵

회복의 풍성함이 없이는, 이 문제가 고통스럽고 영속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회복의 빛이 없이 이 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3막 짜리 연극을 2막만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할 때 중간 부분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말이 되게 연출할 사람이 있는가? 이 줄거리에는 목적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답변됩니다.

악과 고통은 이 세상에 실로 끔찍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답이 될 그럴 듯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볼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3:24 참조; 야곱서 4:13 참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고린도후서 5:7)하는 영감과 지식을 얻어 끈고 좁은 길을 보다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통해 이러한 지식들이 추가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유혹이나 고통으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고통과 유혹을 겪게 되는 것이지 면제란 없습니다.

말일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엑스 니힐로(ex nihilo) 즉 ‘무’로부터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은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게 합니다. 한 주석자는 인간의 고통과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지만 도우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알고만 계시다면 도우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신, 즉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우주 안에 있는, 도덕과 관계 없는 모든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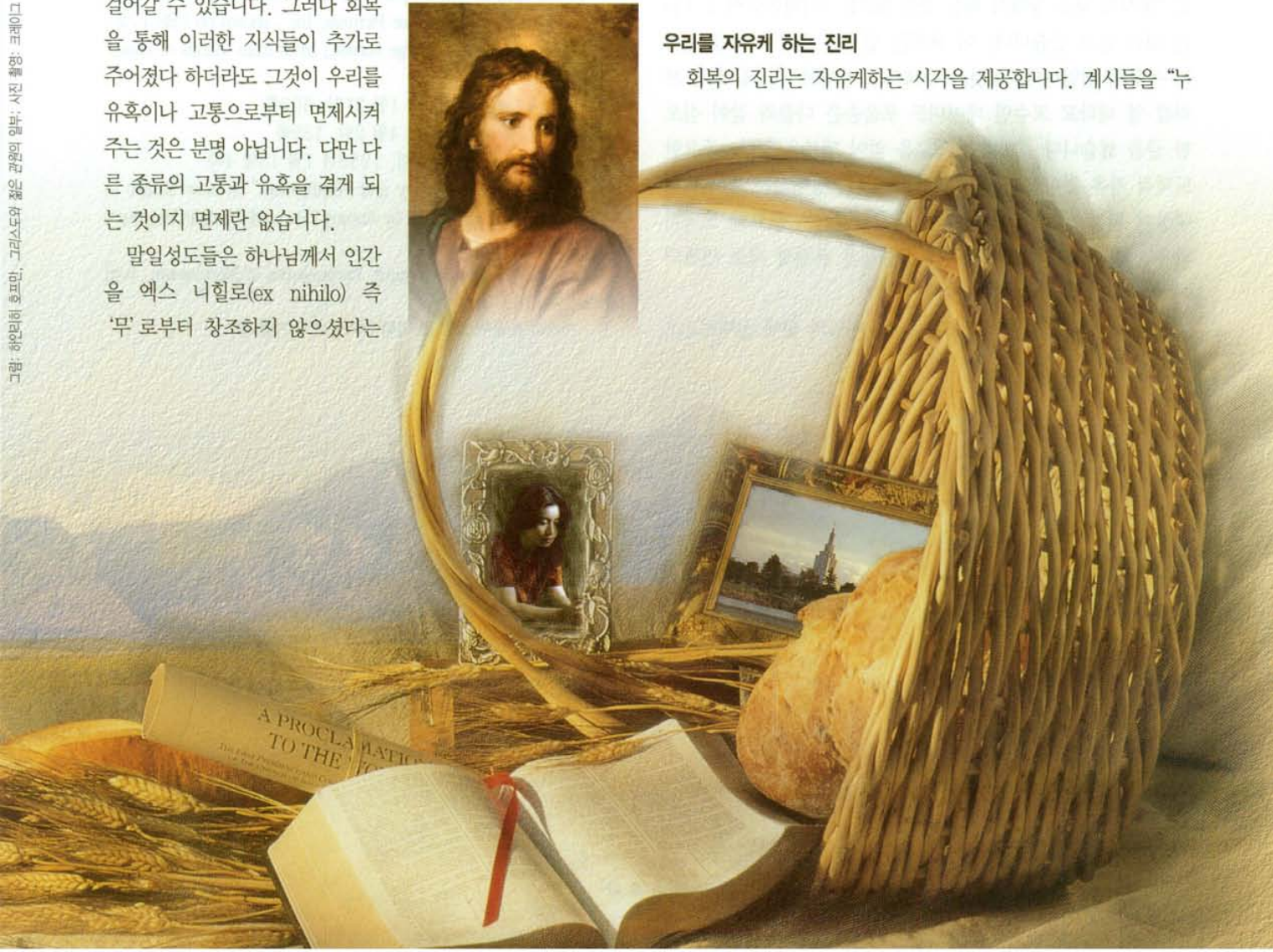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혼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회복의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회복의 진리는 자유케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계시들을 “누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같은 관원의 일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비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의 추수 바구니를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르고 [함께 흔들어]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공존하는 예지 또는 영이지만 분명 동등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아브라함 3:18 참조)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우리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또는 육육적 악의 근원도 원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는 영원한 예지를 조직하신 분입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더욱이 모든 예지가 스스로 행동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놓아 두신 범위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홀로 작용하나니, 모든 예지도 그러하다. ... 보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나니, 이것이 인간이 정죄를 받는 소이니라.”(교리와 성약 93:30~31)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애 현존하는 인간사에 구조적으로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다” (니파이서서 2:11)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인생에 관한 사소한 실마리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요하고 신성한 사실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포울슨은 다음과 같이 심오한 글을 썼습니다. “도덕적 의로움 없이 행복은 없다. 주요한 도덕적 자유 없이 도덕적 의로움은 없다. 상대되는 것(선택의 대상이 되는 서로 반대되는 가능성들) 없이는 주요한 도덕적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행복과 상대성은 본질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⁸

회복의 진리를 함께 놓고 “흔들”때, 매일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력한 이해력이 출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먼 훗날에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명확해 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그분께서 돕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의 축복을 수혜한 자들로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 구원의 계획의 사업과 영광에 관한 “빛과 지식을 많이”(앨마서 9:19) 받은 사람들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의 추수 바구니를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양육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1995년 2월 3일 유타 솔트레이크 시의 어셈블리 홀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

주

1. In *The Lion in Winter*, part 3 of the documentary *MGM: When the Lion Roars*, 1992, Turner Pictures, Inc., shown on PBS.172
2. Robert Wright and George Forrest, lyrics from “Sands of Time,” *Kismet*, 173
3. *Deseret News*, 1872년 1월 31일, 609쪽
4. *Deseret News*, 1873년 4월 2일, 132쪽
5. *Daily Express*, 영국 런던, 1953년 7월 13일 4쪽
6. Antony Flew, “Theology and Falsification,” in *New Essays in Philosophical Theology*, edited by Antony Flew and Alasdair Macintyre (1955), 107 쪽
7. In Daniel H. Ludlow, editor, *Encyclopedia of Mormonism*, 5 권 (1992), 2:478.
8. 저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저자에게 편지를 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를 구축함

십 이사도 정원희의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필멸의 가족의 목적은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며,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모든 식구들을 영원한 가족 관계 안에서 승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율법의 더 중한 바”, 2000년 3월호 리야호나, 16쪽)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승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강화된다.

엘리아의 사명

1836년 엘리아는 커틀랜드 성전에 있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말라기 4:6; 교리와 성약 2편 참조)하며,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는 인봉의 권세의 열쇠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엘리아의 오심은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우리 각자는 어떤 면으로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성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이 책임들을 수행할지 알고자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성전 의식을 받고 함께 사는 가족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기록과 가

족 및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이용하여 조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조상들의 성명을 성전에 제출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그 분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가족 역사를 자녀와 손자녀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를 함께 연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날과 경험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일지와 개인 역사

가족의 유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과도 강화될 수 있다. 때로 이러한 유대는 우리가 일지를 작성하고 가족 역사를 기록할 때 발전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할 때 우리의 기록은 앞으로 올 세대를 강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한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스

물 한 살 때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그것이 평생토록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권 축복을 통해, 나는 나의 신앙에 따라 치유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증조 할머니의 개인 역사를 주셨다.

“증조 할머니는 어렸을 때 스위스에 살았으며 불치병으로 고생하셨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할머니는 신권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책자를 읽었다.”

교회에 가입한 후, 증조 할머니는 병을 낮게 해달라고 신앙으로 기도 드렸다. 후에 그녀는 수많은 신권 축복 가운데 하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내 모든 후손들에게 병이 나았을 때 내게 밀려온 느낌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구나. 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정말로 병이 나았다.”

이 기록은 이 자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신앙은 강화되었고, 나도 역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리라 믿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영원한 가족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가족들은 세대를 연결하여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는 권세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아나 루스레시아 모랄레스

시인의 재능

돈 엘 설리

아날루는 이렇게 쓴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인에게,
인생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재능을 주셨네.

그녀는 테라스에 있는 그네에서 공부를 하고 옷 사는 일을 즐기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소녀다. 그러나 그녀는 시 읽는 일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인생의 본질과 사물,
즉 물과 지구와 달과
아침을 느끼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글로 쓰는 소녀다.

처음 보면 아나 루스레시아 모랄레스는 열여섯 살 된 다른 과테말라 소녀들과 많이 닮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며, 어떤 면에

서는 그녀를 존경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무리 숙제가 많아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저녁 다른 공부를 하러 간다. 그녀는 그것을 세미나리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기에 세미나리는 신부나 목사들이 공부하는 곳이지 십대 소녀가 갈 곳은 아니었다. 친구들은 이렇게 묻거나 말한다. “지루하지 않니?”, “재미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아날루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아날루라고 부른다.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에 와서 아날루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을 데리고 곧바로 저녁 여섯 시에 시작하는 세미나리 반으로 간다. 아날루는 친구들에게 세미나리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경전 공부를 좋아한다. 세미나리 반에서 실시하는 성구 외우기에서 2등을 했다.

15명쯤 되는 반원들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의 팔미타 스테이크 산페드리토 와드 건물에서 모임을 갖는다. 아날루는

적어도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경전 공부를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린다.

아날루는 오스트리아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콜레지오 비엔나 사립학교에 다닌다. “전 그 학교가 좋아요.”하고 그녀는 말한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엔 친구들도 많아요.” 친구들 가운데 회원은 서너 명 밖엔 없고 같은 반에는 한 명도 없다.

아날루를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열의 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항상 커피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나라에서 그것은 일부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커피 마시는 것이 무슨 죄가 되니?” 하고 친구들이 묻는다.

“전 친구들에게 커피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런 질문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도 있다.

대개 친구들은 그녀의 믿음을 존중하지만 대부분은 지혜의 말씀과 다른 몇 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그녀에게, 그녀가 하지 말라고 가르침 받은 것을 하기를 권할 때 그것을 저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한다.

“세미나리는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문제에 부딪치면 세미나리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언자와, 주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하고 그녀는 설명한다.

아날루가 주님과 그의 예언자의 말씀에

아날루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도록 가르쳐주는 복음에
대해 감사한다.





“모든 훌륭한 은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52편 14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우리가 자신의 창의적인 은사를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야 할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사 또는 방식이 기도, 상한 심령, 의식과 계명에 대한 순종, 온유하고 교화적인 언어, 분쟁하지 않는 것과 주님의 권세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는 데 달려있다고 배웠습니다.

“46편 10절은 연구하고 배우고, 예지와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나의 한 친구는 ‘피아노를 칠 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릅니다.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얼마나 훌륭한 교훈인가! 우리가 시도하기만 하면 솟아오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숨은 재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러나 창조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나는 ‘무릇 모든 은사가 저들에게 다 주어지지 아니하니니’(교리와 성약 46:11)라는 말로 재능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번역가 및 통역자가 가까워서 함께 일하게 될 때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시니 얼마나 운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다. 한 번은 그 말에 대해 바로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었다. ‘저의 방언의 은사는 수천 시간이나 공부하고 수많은 실패와 낙담의 순간을 극복한 후에 받은 것입니다.’”(“모든 훌륭한 은사,” 성도의 빛, 1984년 12월 호, 36, 38쪽)

따르는 방법은 그녀가 쓴 시 첫 부분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인에게

육감을 주셨네.

느낌의 본질을

감지할 수 있도록

물론 아날루도 다른 모든 소녀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똑 같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뮤지컬 그룹은 발라드와 팝 뮤직을 연주한다. 그녀의 친구 가운데는 또한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아날루는 그 친구가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아날루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한다. 그녀는 특별히 한 영화 배우를 존경하는데 그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다. 그 배우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 배우는 항상 재미있는 인물들을 연기하지만 그 인물들은 매우 공감이 가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날루에 관한 것과 언젠가 결국은 그녀가 이루고 싶어하는 가족에 관해 말해준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제가 지닐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저의 미래의 자녀들도 지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날루는 일찍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기를 배웠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셨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의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며 살아날 희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날루의 어머니는 가족들을 함께 모아 기도를 드렸으며 각자에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회복되어 의사들을 놀라게 했으며 의사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아날루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날루(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여동생 루스 안드레아 카롤리나, 사촌 가브리엘라 그리고 남동생 호세 마누엘.

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한 경험과 그녀가 받은 가르침은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 그녀의 한 부분이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시에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생각을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혈관을 흐르던

인격은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한다.

시로 옮겨보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

경전 공부 제언

✓ 경전 공부에 우선 순위를 둔다. 여러분은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낸다면, 다른 해야 할 일들은 적절하게 제 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 가능하면 정신이 가장 맑게 깨어 있을 때,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읽는다.

✓ 읽기 전에 이해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신이 함께 하기를 간구한다.

✓ 읽은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읽은 내용을 숙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한다. 읽고 있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였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 개인 일지를 쓴다. 경전에 관해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록한다.

✓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그에 대해 간증을 전하는 것은 배운 것을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 가능하다면, 조용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방해 받지 않는 곳에서 읽도록 항상 노력한다.

✓ 현재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관한 참조 성구를 찾아본다.

✓ 경전에서 찾은 가르침과,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배운 원리대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결성한다.

✓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가 놓친 부분을 읽는다. 매일 얼마나 많은 양을 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그분을 닮을 수 있게 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대관장은, 물몬경이 그 책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힘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욱 큰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됩니다.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라고 그는 약속했다. (“물몬경—우리의 중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여러분이 경전 공부할 시간을 내거나, 경전을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음 제언들이 개인 경전 공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세의 집을 떠나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며, 그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 육신을 얻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입는 육신은 그 모습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육신의 외모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육신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이 육신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육신이 영을 통제하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모세서 6:49 참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자동차에, 그리고 영을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는 훌륭하고 강력한 도구이다. 운전자가 정신이 온전하고 주의 깊게 운전할 만큼 성숙하다면, 그는 자동차를 잘 통제할 것이며 자동차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졸거나 술에 취해 있고 운전이 주의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하게 운전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면 자동차는 통제를 벗어나 운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모두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영을 통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두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영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결코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을 지배

인 생 에 서 의 갈 등

정체성이란 그저 몇 가지 감정과 본능, 그리고 육신을 통해 얻는 경험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믿게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육신에는 영이 거하고 있으며, 그 영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죄한 상태로 지상에 왔고, 선하고 옳고 순수한 것을 갈망하고 있다.(교리와 성약 29:46~47; 93:38 참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곁에 있다 왔지만, 지상으로 올 때 망각의 장막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전세의 생활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들에 이끌린다. 이런 선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육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육신이 세상

전자, 그리고 사고에 휘말리게 될 다른 누군가 모두에게 재난과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1873~1939)는 우리가 맞게 될 가장 큰 갈등은 자신과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영혼의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육신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은 구속 받지 못한 지상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는 지상의 원소를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욕망, 야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하는 강한 영을 갖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의 영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음식을 얻습니까? ... 교회 회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상징물을 먹고 마시도록 성찬 테이블에 초대 [받습니다] ...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에 축복이 있으리니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은밀한 기도와 가족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물질적인

세계를 차단하고, 영혼의 창문을 열어 자신에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끌어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으로 이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와 또 다른 기회가 영적인 음식을 위하여 제공되며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은 곧 영적인 약자가 될 것이며 육

신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적인 음식을 얻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육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육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 쇠사슬은 그 중 가장 약한 접합체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쇠사슬은 그 약한 지점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약한 접합점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그 약한 고리를 알아 한

영혼을 사로잡고자 할 때 그 약한 지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강한 지점이 있겠지만 그는 결코 우리의 강한 지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불사불멸의 영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영을 노예로 만들 수 있으므로 육체를 통하여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나 영이 육신을 종으로 삼고 육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영혼을 위한 투쟁,”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36~38쪽) □



“그가 혹은 사

구세주께서 승천하신 후,
초기 교회를 관리했던
사도들의 지도력의 모형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구 세주께서는 초기 교회에서 교회 지도력의 모형을 제정 하셨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에베소서 4:11)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고래로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지녔던 중대한 역할을 설명했다. 사도들의 지도력의 이러한 모형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와 현대 예언자들에 의해 더 확 인되고 있다. 신약성서 시대 사도들의 역할과 현대 사도들의 역할 간의 두드러진

유사성은 이 신성한 직분의 계속되는 유효성을 증거한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부름을 받는다**

사도란 말은 그리스 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사도로 부름 받기 위해서는 신성한 위임과 신권의 권세가 필요하다. 사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과 교회의 관리를 돕는 독특한 임무를 갖고 있다. 사도라는 말은 초기의 족장들과, 그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

인도하던 예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속죄 그리고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들로 부름 받은 이들에게만 사용되었다. 그것은 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똑같은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사도행전 1:2), 계속되는 사도들의 일을 인도하셨다. 사도들은 주님께 의해 준비되고 가르침 받아 부름과 성역을 성취할 수 있

었다.

주님께서는 현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고 본 교회의 첫 장로가 된 요셉 스미스 이세(와) …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셉의 손으로 …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교리와 성약 20:2~3)를 시초로 하여 다시 사도들을 부르셨다.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직은 1835년 2월 14일에 있었으며, 그 때 사도들이 택함 받고 발표되었다.(History of the Church 2:181~189 참조)

사도들은 모든 나라의 백성을 가르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도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항상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마가복음 3:14) 그들이 처음에 베풀었던 성역은 이스라엘의 권속들에 국한되어 있었으나(마태복음 10:5~6; 15:24 참조), 구세주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모든 족속”(마태복음 28:19)을 가르치도록 보내셨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보여준다. 오순절에 베





“현재의 대관장단 정원회와 십이사도 평의회와 모든 분들은 거룩한 사도 직분에 따르는 열쇠와 권리 및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회와 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는 권세가 이 권능 안에 있습니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 모여 있는 외국인의 무리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사도행전 2:6) 들었다.

훗날, 초기 십이사도들의 예언자요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이 사업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켰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사도행전 10:34~35)던 것이다. 처음에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영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개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사도행전 11:1~18 참조) 사도행전은 십이사도들의 일부 선교 여행을 묘사하고 있고, 널리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부름 받은 사도들은 교회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

아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저들(대관장단)이 너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저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효과적인 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112:19) 십이사도에게는 또한 그들이 이 임무를 성취하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송된 이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교리와 성약 84:62; 107:35; 112:21 참조)

사도들은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고대와 현대의 사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책임은 “왕국의 열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리하고 이끄는 신권의 권능에 관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를 감리 수장으로 하는 초기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주님께서는 현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들(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곧 내 이름의 특별

우리는 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다.



한 증인으로 확인하게 하였고,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내가 저들에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열쇠를 지니게 한 자들이니라.

“나는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나의 왕국의 열쇠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맡겼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충만한 때를 위한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27:12~13, 또한 교리와 성약 112:30~32 참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사도로 성임되어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된 한 분 한 분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대관장단 정원회와 십이사도 평의회 모든 분들은 기록한 사도 직분에 따르는 열쇠와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회와 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는 권세가 이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 권능의 행사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동료 사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¹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을 가르친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고린도전서

12:28)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한에서 이러한 교회 직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에베소서 2:20)신 건물에 비교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경륜의 시대에서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 등이 …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6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대관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1871~1961)의 유익한 가르침을 인용했다. “일부 총관리 직원들, 곧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주어져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되며, 이로써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권리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며, 이러한 이들의 은사는 전반적인 권세와 권능을 지닌 대관장에게 귀속됩니다. 그 외 다른 총관리 직원들에게는 이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교회의 다른 모든 직원이나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그들 중 어떠한 사람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의 영적인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²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에베소서 4:14 참조)고 보호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그러한 보호책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정하신 사도들과 예언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³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리와 성약 1:14)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과 관련된 특별한 은사로 인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선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전에서는 교시들이 “그들이 보고 들었으며 가장 확실히 믿는 바”라 하더라도 “예언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것 … 외에는 전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2:36, 9)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신약성서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지부들이 조직되고 성장해 가는 동안 사도들은 여러 곳에 다니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사도행전 14:22~23)였다.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지시 사항과 권고를 주고 받았다. 고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 받고 성임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관행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권능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대의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도 … 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
이 더 굳어지고”(사도행전 16:4~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도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 주의 이
름으로 직무를 집행하니, 교회를 설립하
며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
를 정리”(교리와 성약 107:33) 한다. 또
한 “십이사도회는 … 교회의 다른 모든 역
원을 성임하며 질서있게 할 의무가”(교리
와 성약 107:58) 있다. 하워드 더블류 헌
터 대관장(1907~1995)은 사도들이 행
하는 봉사 가운데 이러한 측면에 관해 다
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 받고 성임됩니다. 그
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관행을 확
립하고 유지하는 권능과 책임을 갖게 됩
니다.

“… 교회의 통치와 예언적인 은사의
행사는 언제나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갖고
행사하는 사도들의 권능에 속하게 됩니
다.”⁴

선임 사도는 교회의 대관장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임 사도는 교회
를 감리하고 새로운 교리나 변동 사항을
발표할 책임을 갖는다. 가룟 유다의 죽
음으로(마태복음 27:3~5 참조) 십이사
도 정원회에는 결원이 생기게 되었다. 베





드로는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새로운 사도인 맛디아의 부름을 인도하였다. 맛디아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사도행전 1:22; 또한 사도행전 1:15~16, 21~26 참조)였다.

또 다른 예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성역을 이스라엘 권속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시키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사도행전 10:9~16 참조) 그 계시를 이해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교회에 두루 알렸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계시를 발표하고 그것을 시행한 후, 모세의 율법을 강력하게 신봉하는 교회의 일부 회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가 이 일에 관해 받은 신성한 지시에 대해 간증하였다.(사도행전 11:1~18 참조)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교회의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이 계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또 다른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다.(사도행전 15:1~5 참조) 이 문제는 평의회에서 협의되었으며 베드로의 지도력 아래 해결되었다. 앞서 받았던 계시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사도들은 “교회의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한다.

서한이 모든 교회에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사도행전 15:6~31 참조)

한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교리와 유대인 문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다. 교리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한 동안 많은 유대인 회원들에게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문화적 전통이 남아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교리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만, 그에 관련한 전통이나 풍습이 너무나 강하여 총관리 역원들은, 신약성서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시된 기본적인 원리가 알려진다면 마침내 성신이 전통을 고수하는 회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들이 전통이나 학문적 인기, 동료들의 압력을 떨쳐 버리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겠다는 느낌을 받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회원과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 모두에게, 전통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풍습과 계시가 대립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유익한 사례이다. 살아 계신 예언자만이 그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 오직 살아 계신 예언자만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⁶

오늘날에도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같은 형태로 계속된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십이사도와 대관장단 중에서 “오직 감리 대제사인 교회의 대관장만이 교회를 대표하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되며, 오로지 대관장만이 교회를 위해 새로운 계시나 또는 개정된 계시를 받으며, 교회에서 공인되는 권위 있는 경전 해석을 제공하며, 또한 교회의 기존 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⁷는다고 가르쳤다.

“교리 또는 원칙에 관한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관장이 주께 여주어 계시로써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2:23) 대관장단과 십이사도가 평의회에서 만날 때는 “교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무”(교리와 성약 107:78)를 논의하며 계시에서는 이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 평의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영[적인 일]에 관한 논쟁의 최종 판결이”(교리와 성약 107:80) 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다

성임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 자” “생명의 주”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간증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사도행전 3:12~18 참조) 그는 모세



“특별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저는 모든 동료 사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진리보다 제가 더 확신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진리는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가 예언하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예언자”, 즉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자로서 “복 주시려고 …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사도행전 3:19~26 참조; 또한 신명기 18:15~19; 니파이일서 22:20~22 참조)신 자가 바로 예수라고 가르쳤다. 베드로, 요한, 바나바, 바울 및 다른 사도들은 각각 그들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들이었다.

구속주께서는 말일의 사도들에 관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라. 이리므로 이들이 …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교리와 성약 107:23)라고 말씀하셨다. 이 책임에 대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들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실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앞으로도 그

렇게 할 사람들로써 이 직분에 주님께 서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도 직분에 성임되고 십이 사도 평의회 일원으로 성별된 후 주로 성역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⁸

그리고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현대의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매일 일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겸손하게 간증 드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렇게 간증해 왔습니다.”⁹





사도들은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다

사도들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 봉사한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마가복음 16:9 참조) “게바[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고린도전서 15:5) 다른 사람에게 보이셨다.(고린도전서 15:6~9 참조)

한번은 초기에 십이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요한복음 20:19; 누가복음 24:36 참조) 계셨다. 이 초기의 사도들은 구세주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 보았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축복하셨다.(누가복음 24:37~48; 요한복음 20:20~23 참조)

8일 후에, 십이사도들은 다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먼젓번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하였다.(요한복음 20:24~29 참조)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십이사도에게 나타나셨다.(마태복음 28:16~18; 마가복음 16:12~13; 누가복음 24:13~32; 요한복음 21:1~15 참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도들의 임무

1995년 3월 12일 이래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선임 사도이자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가 구세주의 사명을 증거하는 것임을 확실히 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 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사도행전 10:39~41; 사도행전 3:15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사도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특별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저는 모든 동료 사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진리 이상으로 제가 더 확신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진리는 없습니다.”¹⁰

결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의 성역에 관한 방대한 내용의 일부와 사도 성역의 권세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처음 십이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과 이름이 언급된 다른 네 사람이 그 복음의 경륜의 시대 초기에 봉사했다.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92명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했다. 그들은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이 신성한 직분과 부름에 따르는 책임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포도원에서 사도의 직분에 따르는 봉사를 수행할 때, 구세주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친구라고 칭하신다. “내가 나의 사도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사도 곧 하나님의 대제사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나의 친구니라.”(교리와 성약 84:63) □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는 교회 협의부의 평가과 관리자이다.

주

1.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54, 59쪽.
2. “십이사도”에서 인용,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쪽.
3. 마크 이 피터슨,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음,” 성도의 빛, 1973년 11월호.
4.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2월호, 7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The Lengthening Shadow of Peter”, *엔사인*, 1975년 9월호, 30~35쪽 참조.
6. 로버트 제이 매튜스, “A Crisis, a Council, and Inspired Leadership”, *엔사인*, 1995년 10월호, 59쪽.
7.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쪽에서 인용.
8.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77쪽.
9.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17쪽.
10. “Five Marks of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뉴 이라*, 1980년 12월호, 48쪽.



성품의 형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영감의 말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은 19년 동안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종종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했다. 다음의 내용은 교회 제9대 대관장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들이다.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의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만큼,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끊임없이 강조하신 인생의 원리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나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말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됨됨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7 참조]이라는 진리를 어떤 교사보다도 더욱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

“... 만족, 안심, 평화 등 인생을 가지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각 개인의 마음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근원으로부터 불안, 혼란, 고통 등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

“... [교회의 모든 교사와 역원인] 자신이 무언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 *인스트럭터*, 1958년 9월호, 257~258쪽)

우리의 인격이 발하는 빛

“자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공존하는 또 다른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그것은 사람의 행동의 영향력이요 생각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빛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칩니다”(“자유지의 ... 신성한 은사”, *Improvement Era*, 1962년 2월호, 87쪽)

양심의 허락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지옥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 우리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만큼 우리의 성품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이 없듯이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만큼 우리의 미래를 잘 예측하게 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

“우리가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기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마치 참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할 때 우리 성품은 강해집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과 묶어 주는 고리입니다”(“생각과 이상이라 불리는 조각품”, *Improvement Era*, 1960년 7월호, 495쪽)

원대한 성품의 발전

“매일 매일, 매시간 시간, 사람은 그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 세대를 통해 존재하게 될 그의 위치와 지위를 결정하는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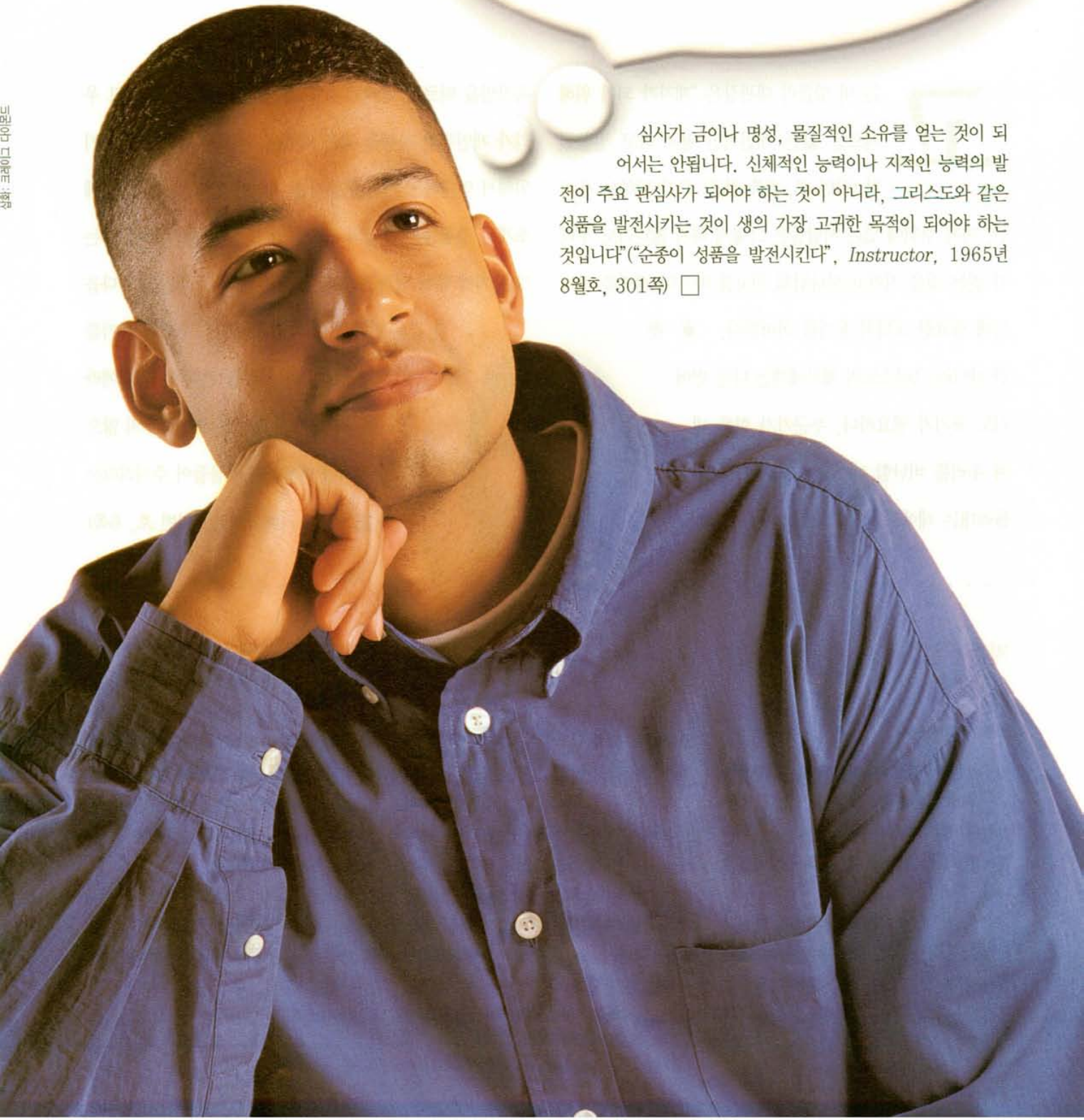
“... 재물보다 더 중요하고, 명성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고귀한 성품을 지니는 일입니다. 참으로 인간을 창조한 원대한 목적은 원대한 성품의 개발이며, 원대한 성품이란 본질적으로 시험의 나날 동안 자기 수양을 통해 얻는 산물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Man's Soul Is As Endless As Time”, *Instructor*, 1960년 1월호, 1~2쪽)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하여 사람이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계시된 인생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발전시킨 성품이며,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생에서 인간의 가장 주요한 관

“우리가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기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마치 참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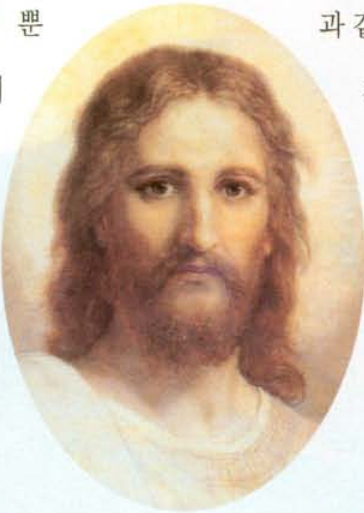
심사가 금이나 명성, 물질적인 소유를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체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의 발전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이 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순종이 성품을 발전시킨다”, *Instructor*, 1965년 8월호, 301쪽) □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값

고 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제자가 되기 위해 속삭임을 따르는 데에도 종종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
 치르는 값은 개인적인 용기”라고 말씀했 리가 개인적인 시련을 겪을 때에는, 의로운 목표에 이르기
 다.(이번 호, 3쪽 참조) 그가 말하는 용기 위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용기를 지녀야 한다. 여기
 란,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개된 경험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가 믿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며 계명을 지키 그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힝클리 대관장의 다음
 는데 필요한 도덕적 용기를 의미한다. 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다른 면에
 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화를 내
 며 우리를 비난할 때,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영의



과 같은 말씀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지상 생활과 시련을 견뎌야 할 때에라
 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
 실 것이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이번 호, 6쪽)

저는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브랜든 제이 밀러

때 는 필리핀의 우기였으며,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종종 반갑지 않은 동물들이 집 안에 들어오곤 했는데 대개 거미와 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반자와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집에 들러서

그들에게 보여 줄 가족 사진을 몇 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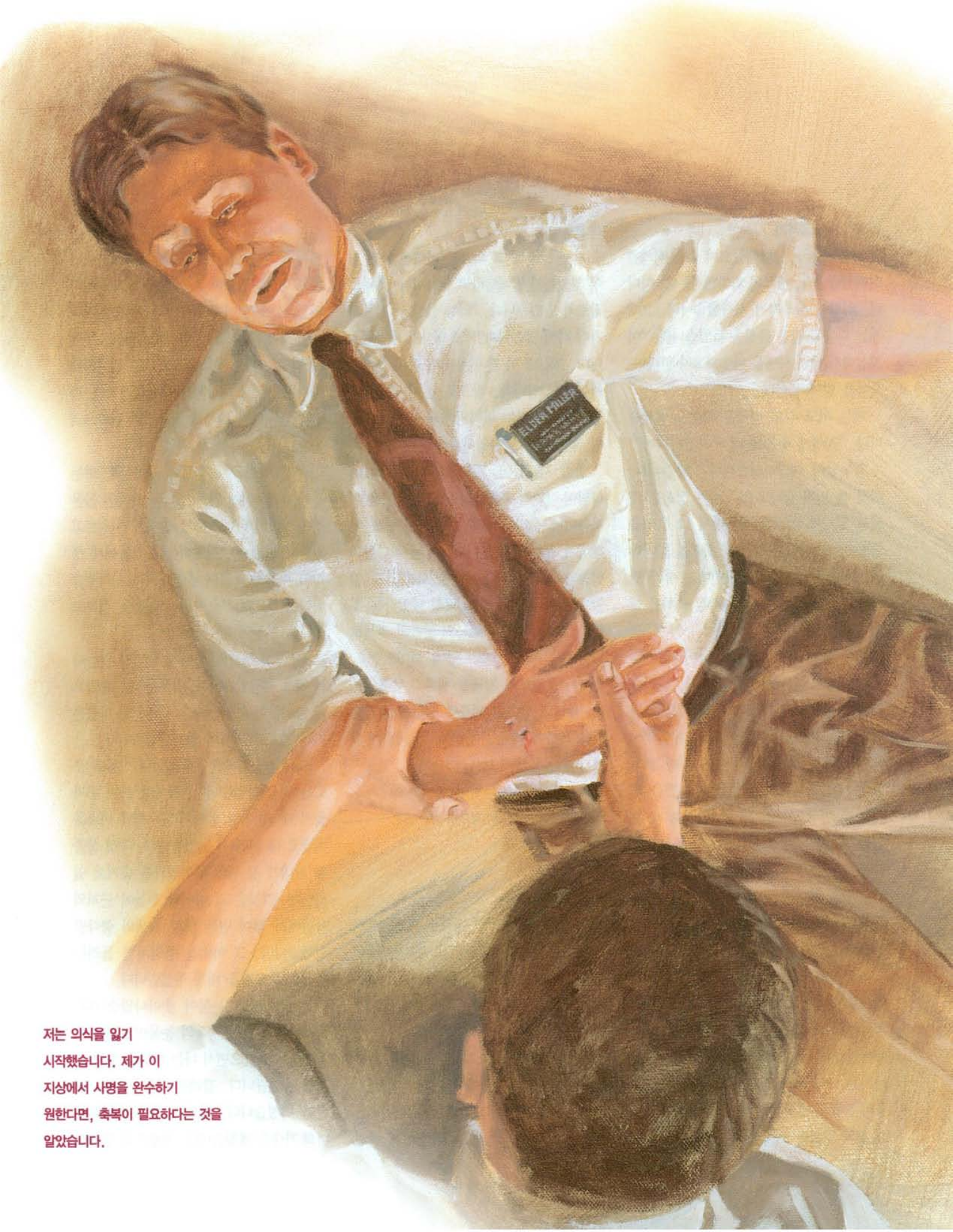
우리는 침대 사이에 놓여있는 낮은 선반 아래에 사진을 두고 다녔습니다. 저의 가족 사진을 집으려고 팔을 뻗다가, 저는 오른손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동반자인 레기스 장로를 불렀으며,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제 손에 있는 피를 보여주며 뱀에게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웃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우리가 뱀 찾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침대 아래 있는 뱀을 발견했을 때 뱀은 레기스 장로가 들고 있던 판자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건 필리핀 코브라예요!”

레기스 장로가 그 뱀을 죽였습니다. 저는 점차 어지러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로터 감독님 댁으로 갔는데 감독님이 전에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서둘

말일성도의 소리 | 제자 되기 위해 치르는 값 | 42



저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한다면,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 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으며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이 희미해지는 듯 하더니,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네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저는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독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좀 먼저 끝내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있기가 어려웠지만 다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곧 축복을 받아야 해. 기다려서는 안돼.” 이번에는 제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축복을 해주세요!”

저는 동반자와 로터 감독님이 해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그분의 신권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다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토하였습니다. 축복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구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위안과 사랑의 따뜻한 느낌이 제 몸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제가 무사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지도자인 호와스 장로가 감독님 댁으로 의사를 한 분 데리고 왔는데, 그 의사는 우리 교회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뱀에 물리고 나서 두 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을 향해 출

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의사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호와스 장로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둘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이 환자는 이미 숨이 끊어졌어야 정상입니다. 참으로 운이 좋군요.” 필리핀 코브라는 필리핀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복음이나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어떤 후유증도 겪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땅에 넘어뜨렸고, 불타는 용광로가 저들을 해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들짐승이나 독사가 저들을 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몬서 8:24)

브랜든 제이 밀러는 아이다호 아이오나 스테이크 아이오나 제2와드의 회원이다.

구름 사이로

애나 리마 블랙스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으며 포르투갈의 파란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근처에서는 조카 몇 명이 더위를 피해 물 속으로 뛰어들며 강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고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최근에 나는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신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결심을 확인

시켜 주셨으나,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떠나버렸으며,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네 아이들이 수영하는 동안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진리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잠시나마 나에게 필요했던 평화스러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카 아이들이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가재온 물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해 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득, 조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쪽을 바라보았으나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은 거의 공포로 변하여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어린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조카들이 태양빛처럼 반짝거리는 뺨에 미소를 머금고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살쯤 된 막내가 등 뒤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와 형들이 근처의 들판에서 꺾어 만든 형형 색색의 꽃다발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음악처럼 들리는 음성으로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눈에서 다시 눈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카들을 껴안으면서 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라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참으로 커다란 평화가 나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진

**돌아다 보니 조카들이 태양빛처럼
반짝거리는 뺨에 미소를 머금고 내 뒤에서
있었습니다.**

이 작고 단순한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카들과 가족들이 나의 결심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시련을 알고 계셨으며 또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기 위해 그곳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에나 리마 브랙스튼은 테네시 카타누가 스테이크 시그널 마운틴 지부의 회원이다.

새로운 꿈

마라 파트리시아 로하스 브이

기술 경영에 관한 공부를 마친 후에, 저는 한 젊은 간부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저와 남편은 우리가 살고 있던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두이타마에 계신 저의 부모님을 방문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사망했으며 저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도 기억할 수 없었으며 걸을 수도, 저의 왼쪽 팔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기억력도 회복되어서 사고가 난 뒤 6년 후에는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후로 한 2년 동안의 일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지니고 있



던 많은 능력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되풀이 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상세한 일들을 쉽게 잊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열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정말로 좌절에 빠져있을 때, 저는 경전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교리와 성약 64:20 참조) 저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쉬운 일을 했으나 이러한 일조차도 저에게는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달 동안의 근로 계약을 완수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그 일을 끝냈을 때, 놀라운 희망의 느낌이 저의 영을 비추주었으며, 그 느낌은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저는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며, 생활에서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저는 곧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의 바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지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은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물몬경을 모두 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회원으

로 지낸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니파이일서부터 시작하기를 적어도 열 번은 반복하였지만 읽은 것을 기억할 수 없었으므로, 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도했으며, 곧 다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각 장을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공책을 한 권 샀고, 니파이일서의 첫 장을 읽었습니다. 금방 읽은 것이 그저 희미하게 기억될 뿐이었으므로, 저는 그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비로서 그때서야 그 장의 주요 내용을 공책에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니파이일서를 다 읽은 후에 각 장을 더 이상 두 번씩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충분히 잘 요약하여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몰몬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것을 끝냈을 때, 그 책이 참되다는 강한 영적인 증거를 얻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는 선교사 건강 진단 양식을 작성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저의 바람을 좌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각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커다란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

니다. 그곳에서 저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에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농장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농산물을 재배하여 팔았습니다. 저는 또한 뜨개질하는 기술을 익혔으며, 그것으로 돈을 벌고 또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 저는 영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재능,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힘이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라 파트리시아 로하스 브이는 콜롬비아 두이타마 지방부 바보사 지부의 회원이다.

강인한 카우보이

앨런 엘 노블

모든 사람들은 로데오 카우보이인 델라스 스톡이 정말 강인한 사나이이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사나이다운 면이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인지는 몰랐다.

몇 년 동안 델라스는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아내 지니와 다섯 자녀의 사랑에 찬 영향과 와드 지도자들, 친구들의 영감어린 노력을 통하여 결국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 그의 감독으로서 나는 그가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고 싶어할 정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준비하였으며, 그 가족은 주님의 집으로 갈 날짜를 정했다.

성전에 가기로 한 날을 일주일 남겨놓고 델라스는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소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사나운 소 한 마리가 말을 듣지 않자, 델라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 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소가 그 문을 받아 문이 벌컥 열렸으며, 델라스는 문과 울타리 사이에 끼인 채로 소에게 들이 받혀 버렸다. 그는 팔과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으며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날 저녁 나는 델라스를 방문했다. 팔에 깁스를 하고 갈비뼈를 봉대로 감은 그는 몹시 고통스러워 하였다. 나는 그에게 성전 방문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독님,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성전에 갑니다.”

델라스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요일에 교회에 왔으며 주일학교의 사회를 진행하는 부름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고통스런 시련이었으나, 그의 헌신은 와드 회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수요일에 델라스, 지니, 그 자녀들, 그

리고 많은 가족과 와드 회원들이 계획대로 성전에 참여했다. 한쪽은 한 아들이, 다른 한 쪽은 사위가 부축한 가운데 델라스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했다. 델라스가 움직일 때마다 와드 회원들은 그가 겪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인봉실에서 지니와 델라스가 부부 인봉과 자녀 인봉을 마치고 난 후, 와드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줄지어 서서 그들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델라스를 껴안으려다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군요.”

그러자 델라스가 대답했다. “감독님,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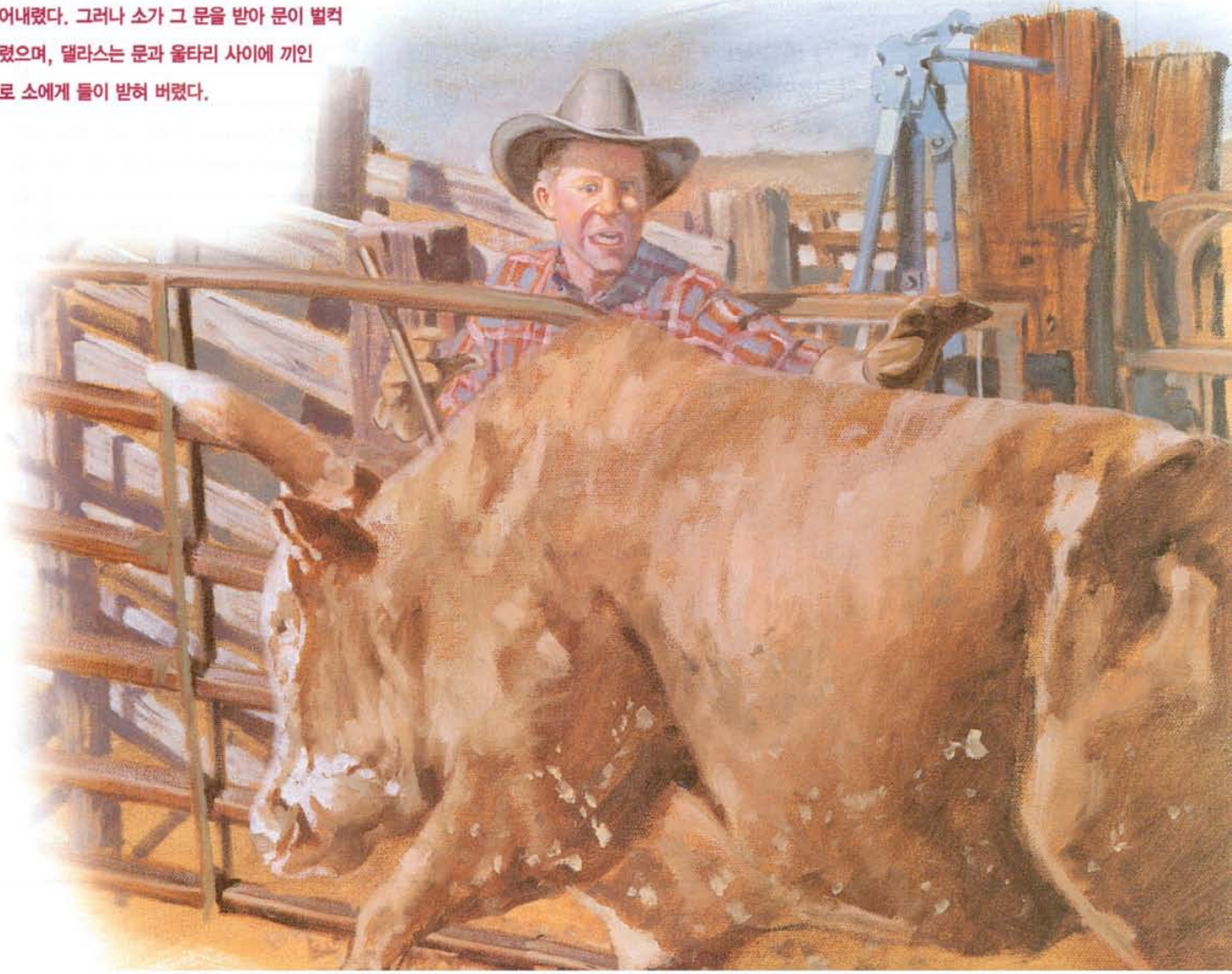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던걸요.”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전혀 아프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면서 그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델라스가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날 우리는 한 카우보이가 지닌 힘이 아니라 한 영적인 거인의 힘을 목격했다. □

앨런 엘 노블은 애리조나 피닉스 웨스트 마리코파 스테이크, 가든 레이크스 와드의 회원이다.

델라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 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소가 그 문을 받아 문이 벌럭 벌럭 열렸으며, 델라스는 문과 울타리 사이에 끼인 채로 소에게 들이 받혀 버렸다.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활용하기

공과 및 토론 제언

■ “확신에 찬 생활”, 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만났던 개종자의 이야기를 읽는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 “인생에서의 갈등”, 30쪽: 여러분의 육체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그가 혹은 사도로”, 32쪽: 사도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특별한 은사는 어떤 것이며 또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예언자가 누구니?” 친구들, 2쪽: 예언자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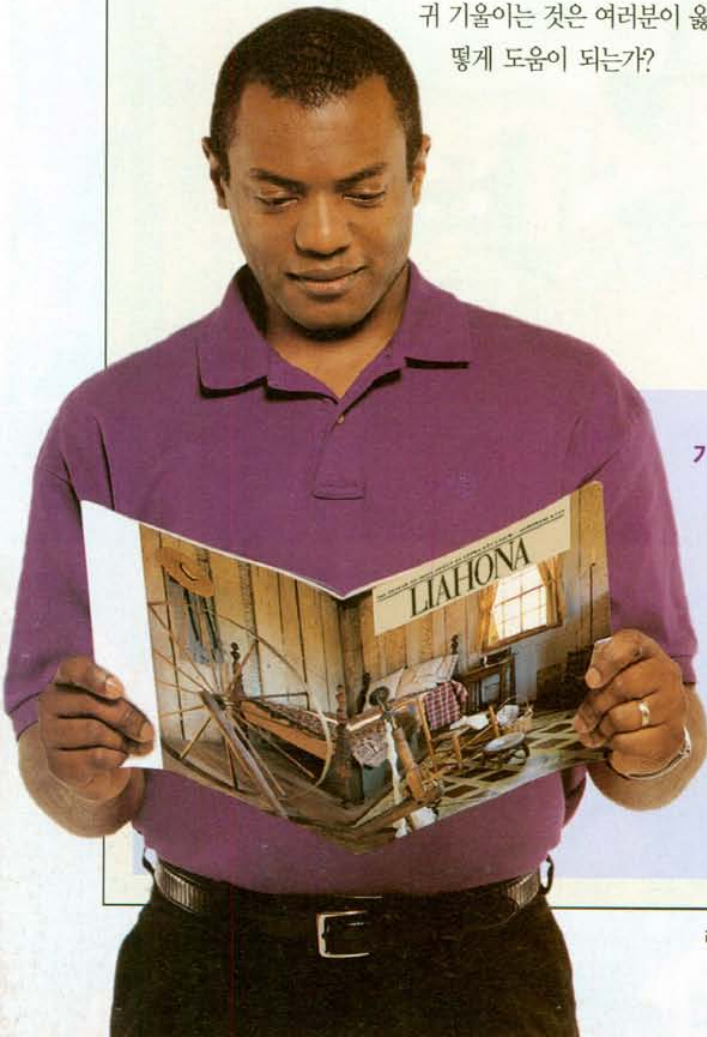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6
- 가정의 밤 48
- 가족 관계 42
- 가족 역사 25
- 경전 공부 8, 26, 29
- 교회 역사 10
- 교회 조직 32
- 기도 찬16
- 멜기세덱 신권 소식
- 모범 찬5
- 방문 교육 25
- 병고침 25, 42, 찬11, 찬14
- 사도 32
- 선교 사업 6, 42, 찬9
- 성전과 성전 사업 25, 42
- 성품 40
- 순종 찬6, 찬16
- 신앙 10, 42, 찬9
- 신약 성서 이야기 찬11, 찬14
- 아론 신권 소식
- 안식 찬2
- 역경 42
- 영성 30
- 예수 그리스도 2, 32, 찬11, 찬14, 찬16
- 예언자 32, 찬2, 찬5, 찬6
- 용기 2, 42
- 자제심 30, 40
- 재능 26
- 제자의 본분 2, 42
- 초등학교 찬6
- 활동화 42
- 회복 10, 18

기사를 모집합니다

연차 대회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떤 복음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연차 대회와 관련된 제언, 이야기 또는 경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나이,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요셉 스미스와 레비 헨콕

교회의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 1835년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성임된 레비 더블류 헨콕이 있었다. 목수가 생업이었던 레비는 성전 건축을 도왔고, 미주리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시온 진영과 물론 대대에 참여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충실한 친구였다.



4 15219 89320 4

21989 320